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기간 국내 서비스업 구조 변화

전상범
통계청 산업통계과 사무관
jsb29@korea.kr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과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단체모임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감염병 대응 정책이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였다.

국내 서비스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로는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 통계가 있다. 서비스업조사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1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2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을 조사한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기간 동안 서비스업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19~2022년 국내 서비스 산업 업종별 매출액¹⁾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해당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업황에 부침이 있는 업종과 발생 초기부터 수혜를 얻는 업종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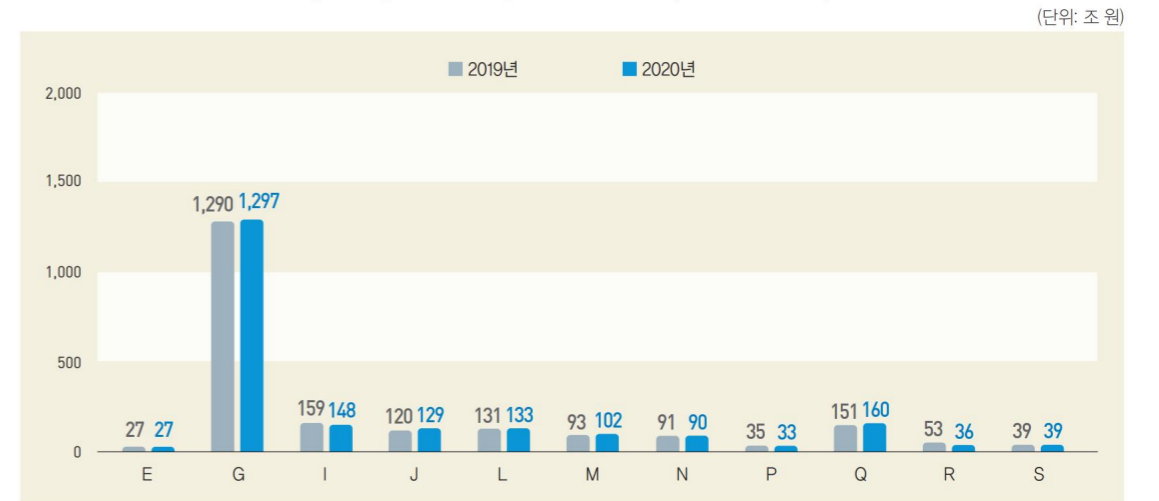
1) 2019년 자료는 현장에서 조사한 구계열(조사 기반) 매출액 자료이며, 2020년 이후 자료는 기업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조사한 신계열(등록 기반) 매출액 자료이다. 2020년은 구계열(조사 기반)과 신계열(등록 기반)을 병행 작성하였다.

I.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 기간 서비스업 매출 변화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및 집합 서비스 업종의 매출 부진과 비대면 및 IT 업종의 매출 호조”

-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 정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 감염병 대응 정책의 양상에 따라 대면 업종 및 집합 업종 서비스업의 매출은 부진한 반면 비대면 및 IT 업종 서비스업은 업황 호조를 보이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 코로나19 발생기간(2019~2020년) 서비스업 매출액 변화
 - 2020년 기준 2019년과 비교하여 예술·스포츠·여가업 36조 원(-31.7%), 교육 서비스업 33조 원(-6.6%), 숙박·음식점업 148조 원(-6.6%) 등에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문·과학기술업 102조 원(8.9%), 정보통신업 129조 원(7.6%), 보건·사회복지업 160조 원(6.0%) 등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그림 1] 서비스 업종별 매출액 변화(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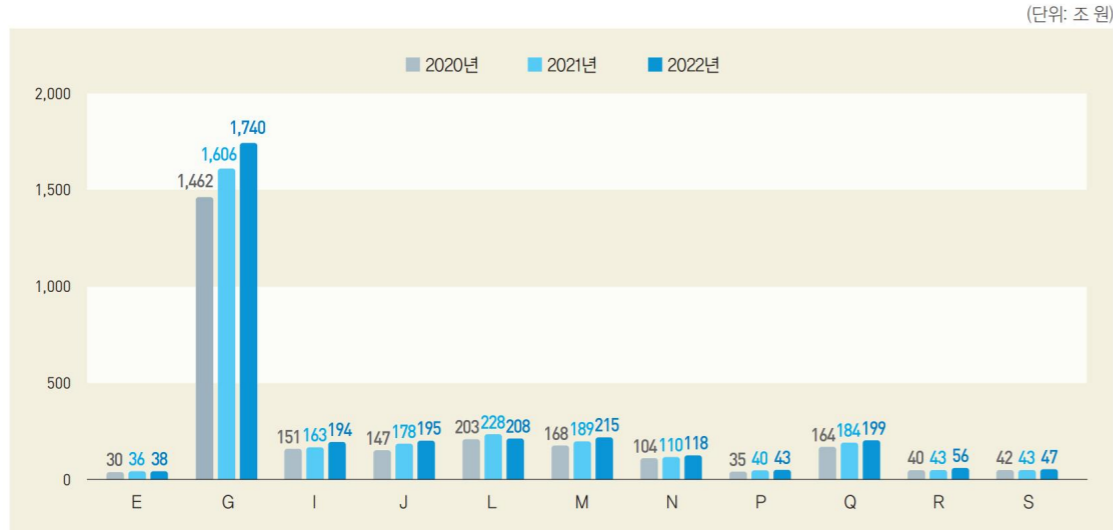


주: E 수도·하수·폐기업, G 도매·소매업, I 숙박·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업, N 사업·시설·지원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사회복지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S 수리·개인서비스업

■ 코로나19 지속기간(2020~2022년) 서비스업 매출액 변화

- 2021년 기준 2020년과 비교하여 정보통신업 178조 원(20.5%),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36조 원(17.3%), 교육서비스업 40조 원(13.7%) 등에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2022년 기준 2021년과 비교하여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56조 원(31.6%), 숙박 및 음식점업 194조 원(18.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5조 원(13.8%) 등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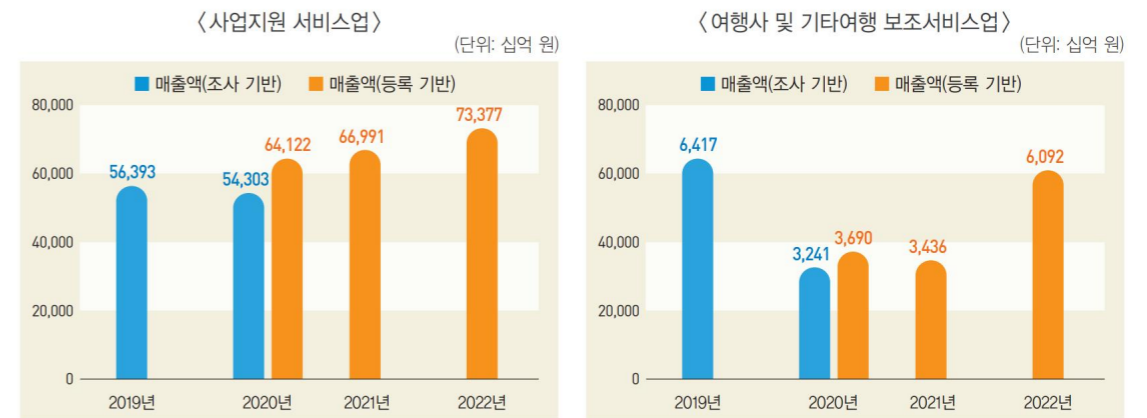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 업종별 매출액 변화(2020~2022년)



주: E 수도·하수·폐기업, G 도매·소매업, I 숙박·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업, N 사업 시설·지원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사회복지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S 수리·개인서비스업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매출액은 ('19년) 56조 4천억 원, ('20년) 5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67조 원, ('22년) 7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 9.5% 증가하였다.
- 2022년 여행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 여행사 및 기타여행 보조서비스업 매출액은 6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3% 증가하였다.

[그림 3] 매출액 추이



“공공장소 기피와 외출 자제로 ‘숙박업, 음식주점업’ 매출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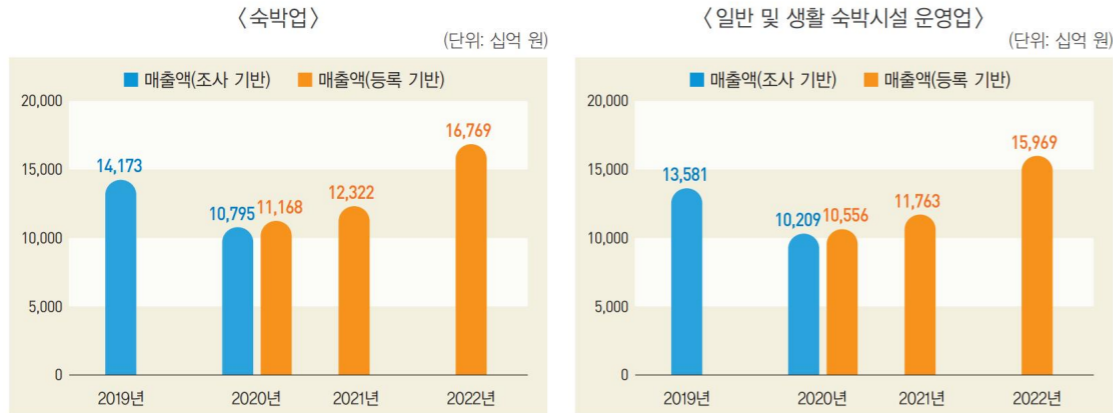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 기피 및 외출 자제로 숙박 업종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숙박업 매출액은 ('19년) 14조 2천억 원, ('20년) 10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12조 3천억 원, ('22년) 1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3%, 36.1% 증가하였다.
 - 2022년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매출액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5.8% 증가하였다.

II.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 기간 부진 업종의 매출 변화

“여행 수요의 감소와 해외 출국의 어려움으로 ‘여행사 및 기타여행 보조 서비스업’ 매출이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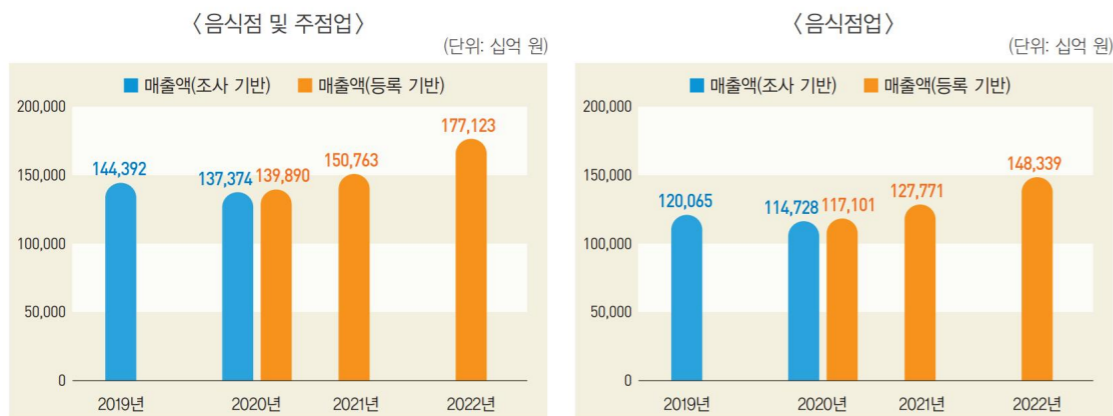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여행, 관광서비스 업종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그림 4] 매출액 추이



-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약속 자제 및 단체모임 금지 조치로 음식점 및 주점 업종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음식점 및 주점업 매출액은 ('19년) 144조 4천억 원, ('20년) 137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150조 8천억 원, ('22년) 17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8%, 17.5% 증가하였다.
 - 2022년 음식점 및 주점업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대폭 증가하였는데, 음식점업 매출액은 14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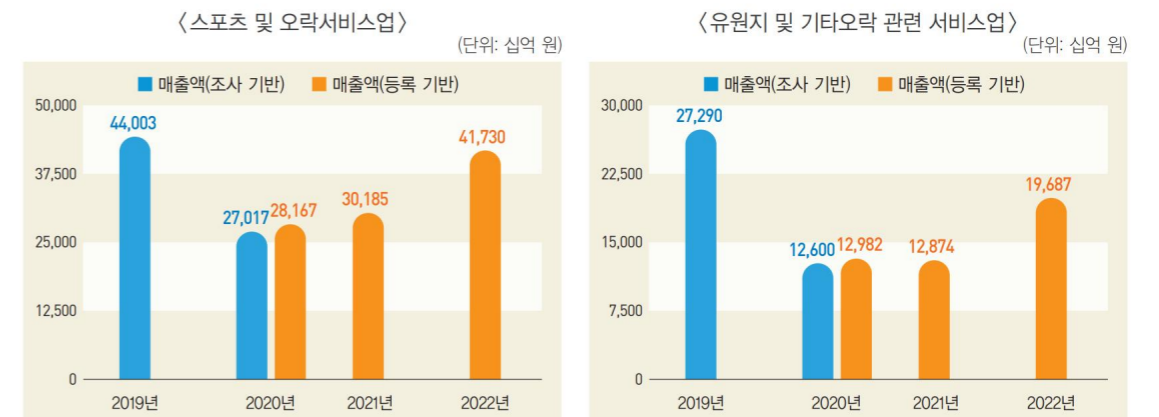
[그림 5] 매출액 추이



“단체관람 금지 및 공연 축소로 ‘스포츠, 오락 관련 서비스업’과 ‘문화서비스업’ 매출이 급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단체관람 금지 및 공연 축소로 스포츠, 오락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스포츠, 오락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은 ('19년) 44조 원, ('20년) 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8.6% 감소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30조 2천억 원, ('22년) 4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2%, 38.2% 증가하였다.
 - 2022년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폭 상승하였는데, 유원지 및 기타오락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은 1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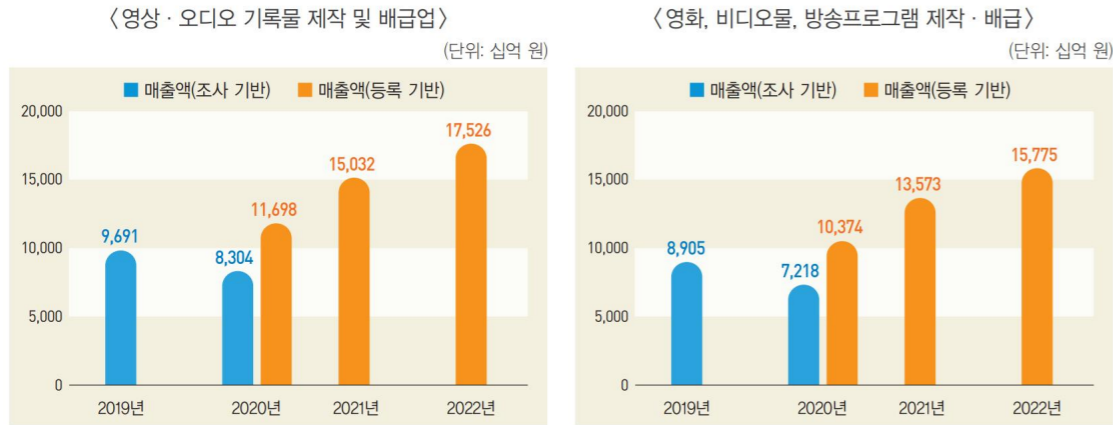
[그림 6] 매출액 추이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극장,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의 침체로 영화·오디오, 방송 등 문화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매출액은 ('19년) 9조 7천억 원, ('20년) 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15조 원, ('22년) 1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5%, 16.6% 증가하였다.

- 2022년 이후 OTT 활성화로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매출액은 증대하였는데, 1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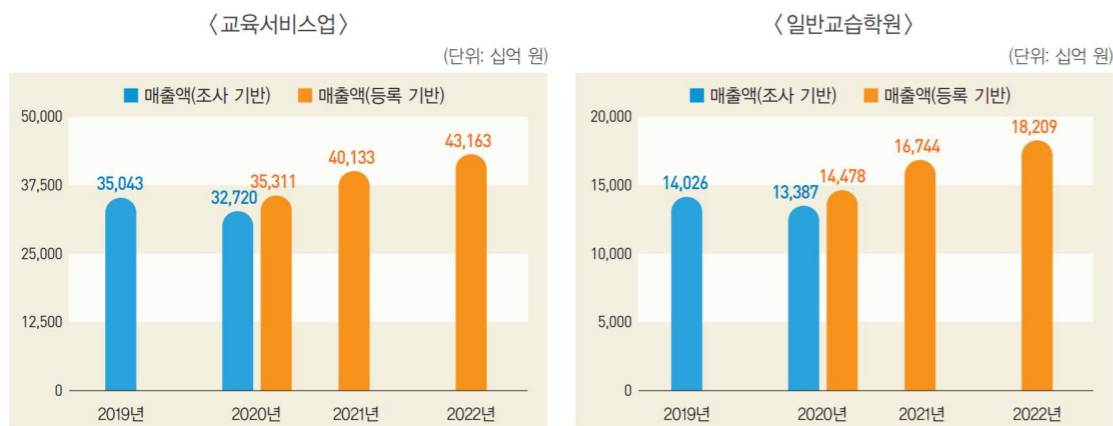
[그림 7] 매출액 추이



“집합모임 기피 및 감염병 우려로 학원 매출이 감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모임 기피 및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학원 수강이나 단체교습 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교육서비스업 매출액은 ('19년) 35조 원, ('20년) 3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다.

[그림 8]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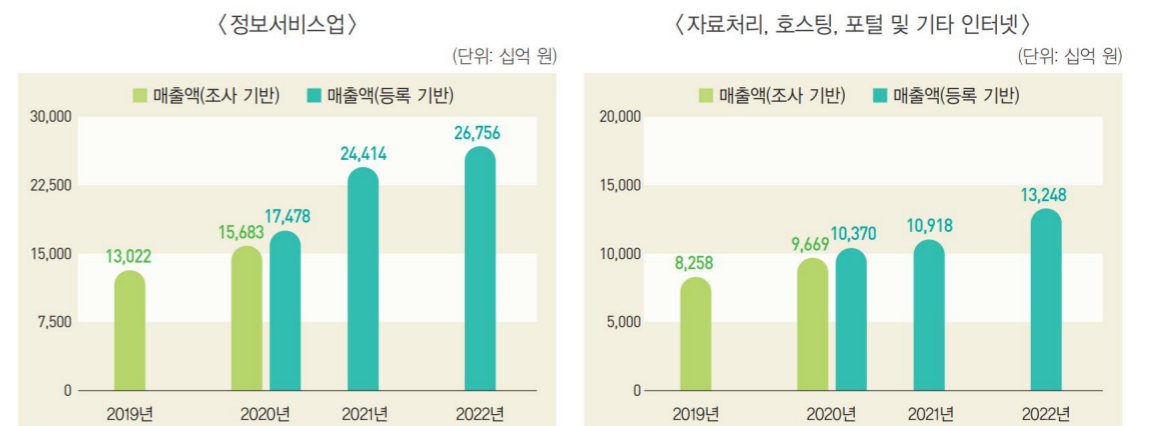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40조 1천억 원, ('22년) 4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7%, 7.5% 증가하였다.
- 2022년 이후 코로나19 지속 기간에도 일반교습학원 매출액은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III.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 기간 수혜 업종의 매출 변화

“정보 및 IT 관련 산업의 디지털화·온라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등 매출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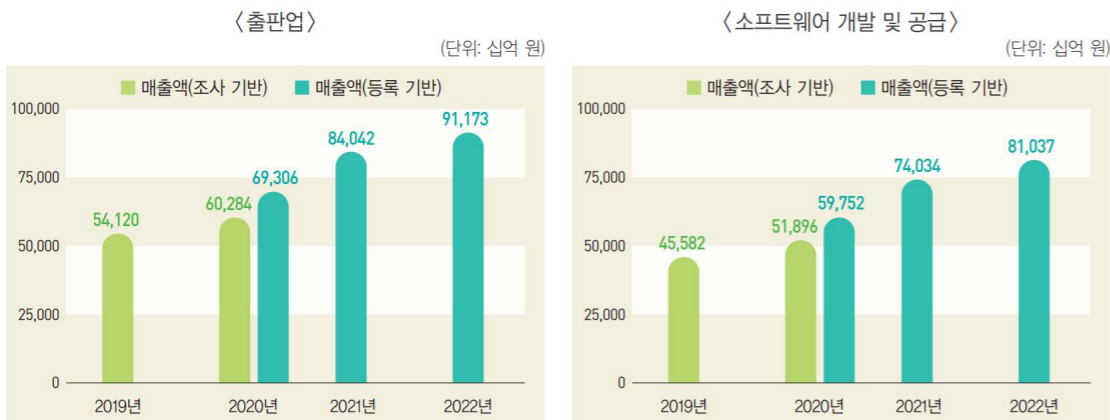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광고, 커머스, 핀테크 등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솔루션을 소비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정보서비스업 매출액은 ('19년) 13조 원, ('20년) 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24조 4천억 원, ('22년) 2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7%, 9.6% 증가하였다.

[그림 9] 매출액 추이



- 2022년 코로나19의 지속에도 정보서비스업 매출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인터넷 서비스업 매출액은 1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다.
- 출판업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호황으로 유선 온라인·모바일 게임 및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출판업 매출액은 ('19년) 54조 1천억 원, ('20년) 60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84조 원, ('22년) 9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3%, 8.5% 증가하였다.
 - 2022년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대하였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그림 10]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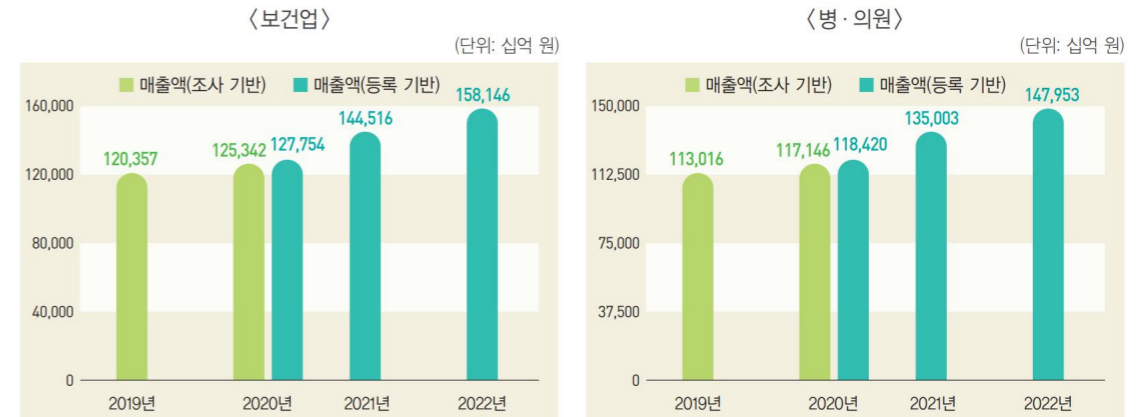


“코로나19를 통해 의료수요 증가 및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료수요 증가 및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로 보건업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보건업 매출액은 ('19년) 120조 4천억 원, ('20년) 12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보건업 매출액은 ('21년) 144조 5천억 원, ('22년) 15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1%, 9.4% 증가하였다.
- 2022년 보건업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는데, 병·의원 매출액은 1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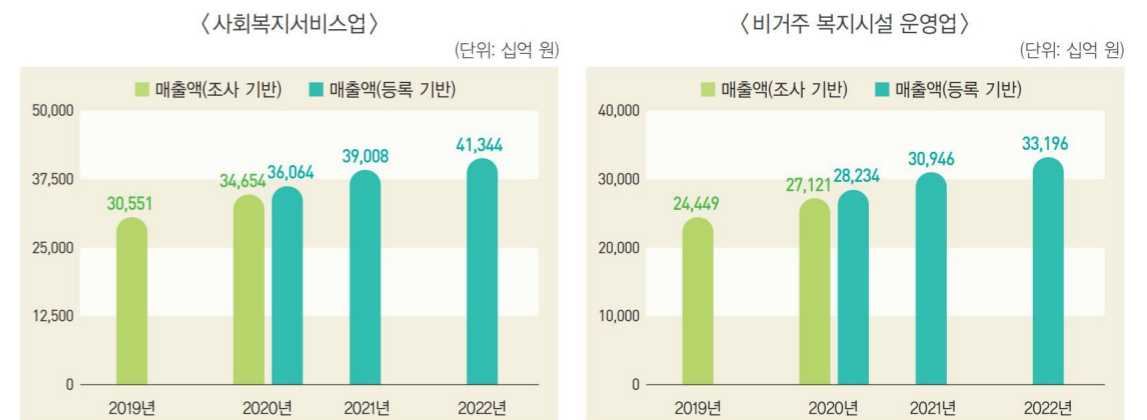
[그림 11] 매출액 추이



“보육업체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지원을 위한 시설 증가”

- 보육업체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그림 12]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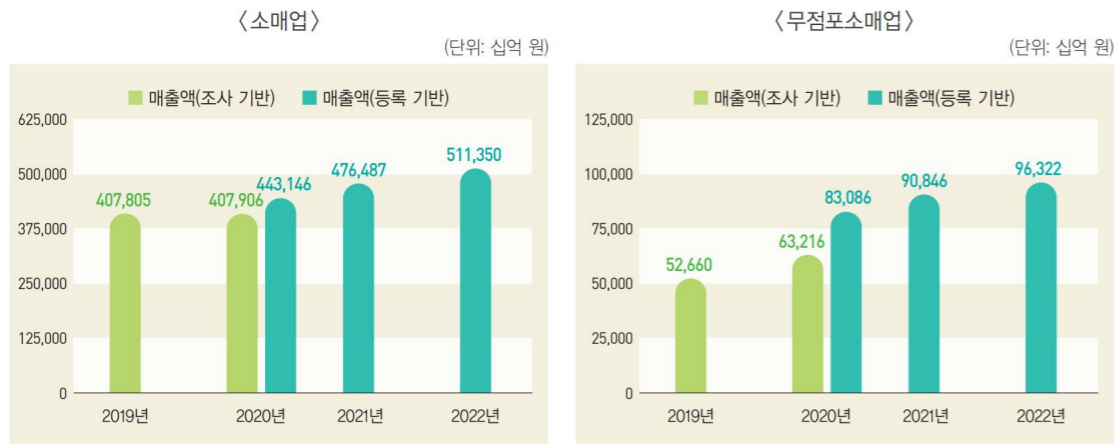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사회복지서비스업 매출액은 ('19년) 30조 6천억 원, ('20년) 34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사회복지서비스업 매출액은 ('21년) 39조 원, ('22년) 4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2%, 6.0% 증가하였다.
- 2022년 코로나19 지속 기간에도 관련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대하였는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매출액은 3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무점포소매업 등 전자상거래 산업 성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인터넷, 모바일 구매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 등 소매업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그림 13] 매출액 추이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후 소매업 매출액은 ('19년) 407조 8천억 원, ('20년) 40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 증가하였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 기간 매출액은 ('21년) 476조 5천억 원, ('22년) 51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 7.3% 증가하였다.

- 2022년 소매업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대하였는데, 무점포소매업 매출액은 96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다.

IV. 시사점

“코로나19 발생으로 영향받은 부진 업종의 업황 회복과 비대면, 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의 성장”

-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투입 등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며 서비스업 경기도 점차 회복되었다. 서비스업조사 전체 매출액을 보면 ('20년) 2,547조 원, ('21년) 2,819조 원, ('22년) 3,054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 외식, 스포츠 및 여가, 문화 등 서비스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보복 소비’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되었다. 음식점업 매출액은 ('20년) 117조 원, ('21년) 128조 원, ('22년) 148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은 ('20년) 13조 원, ('21년) 13조 원, ('22년) 2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매출액은 ('20년) 10조 원, ('21년) 14조 원, ('22년) 1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 타 산업 대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 여행업 등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거치면서 2022년부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매출액은 ('20년) 3.7조 원, ('21년) 3.4조 원, ('22년) 6.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은 비대면 · 디지털 전환의 본격화로 관련 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원격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 서비스가 유망 업종으로 부상하였다. 출판업 매출액은

(‘20년) 69조 원, (‘21년) 84조 원, (‘22년) 9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정보서비스업 매출액은 (‘20년) 17조 원, (‘21년) 24조 원, (‘22년) 27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 기간
국내 서비스업 구조 변화



■ 이 자료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 코로나19 발생 전후 기간
 - (2019년 서비스업조사 결과) 조사 기반: 매출액(조사 기반)
 -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 조사 기반: 매출액(조사 기반)
- 코로나19 발생 지속 기간
 -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 등록 기반: 매출액(등록 기반)
 - (2021~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 등록 기반: 매출액(등록 기반)

※ 2019년 자료는 현장에서 조사한 구계열(조사 기반) 매출액 자료이며, 2020년 이후 자료는 기업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조사한 신계열(등록 기반) 매출액 자료이다. 2020년은 구계열(조사 기반)과 신계열(등록 기반)을 병행 작성하였다.

- 매출액은 연간 실적이고 명목금액으로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 16개 대분류 중 11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25만 개 사업체이다.

〈 조사대상업종(11개 대분류) 〉

E 수도·하수·폐기업	G 도매·소매업	I 숙박·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업	N 사업 시설·지원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사회복지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S 수리·개인서비스업	

※ 조사 제외 업종: H 운수·창고, K 금융·보험, O 행정·국방, T 가구 내 고용, U 국제·외국기관